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본성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은 생리적 욕구만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육체적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양식과 습관의 본질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고독을 피하려는 욕구다. 육체적 굶주림이 죽음으로 이어지듯,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은 정신적 분열을 초래한다. 이렇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과는 다르다. 개인은 육체적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도 어떤 견해나 가치관, 또는 적어도 남과 교감한다는 느낌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사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완전한 고독감에 사로잡힐 수 있고, 이 고독감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가치관, 상징, 행동 양식과의 이런 관계 결핍을 정신적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정신적 고독은 육체적 고독만큼 참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육체적 고독은 정신적 고독과 함께 의미하는 경우에만 견딜 수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 세계와의 정신적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수도원의 독방에서 신을 믿는 수도사와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지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치범은 정신적으로 혼자가 아니다. 지극히 이국적인 환경에서도 야회복을 입고 있는 영국 신사, 동포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데도 조국이나 그 상징과 일체감을 느끼는 소시민도 정신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고귀할 수도 있고 하찮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천박한 행동 양식과 관계를 맺더라도 혼자인 것보다는 훨씬 낫다. 종교와 민족주의는 어떤 관습이나 믿음 못지않게 터무니없고 수치스럽지만, 개인을 타인과 연결해주기만 한다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있다.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 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찢다는 별 하나 건넌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젓꼭지는 더 까만 애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육십 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젠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들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려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참촌 엄마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뽕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 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쉼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기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 가는 집 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씹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흥계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룻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흐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를 부엌으론 샛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 백석, <여우난골죽>

(다)

개발독재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혁명적인(?) 땅값의 시기에 부모님들, 삼촌과 이모, 가깝게는 사촌 오빠와 언니 세대들 일부가 '절대 지지 않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사이 우리에게 남겨진 살 곳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하숙집, 원룸... 만일 학생이라면 기숙사, 직장인이라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매우 성공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아둔 목돈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반지하방에서 원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온전한 '집'이 아니라 '방'으로 여겨지는 곳들. 오로지 하나의 방 혹은 방들로 이루어진 곳들에서 우리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 혹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반지하방과 원룸을 하나의 범주에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장대비가 쏟아지면 이따금 가구가 물에 잠기는 반지하방과 서울 어느 지역에서는 전셋값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원룸을 하나의 분류에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수긍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유를 하는 '집'이 아니고, 대체로 잠시 머무르며,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하숙집, 원룸을 한 범주에 넣는 것을 무리라고만을 할 수 없다.

(중략)

결국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는 원룸(혹은 오피스텔)으로 가고, 보증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원룸보다 더 낮은 단계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 지하방에 살기도 한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엔 점차 기업형으로 변해 가고 있는 하숙집 또는 쪽방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고시원(여학생 전용, 외국인 유학생 전용 고시원 등으로 점점 세분화되는 한편 여전히 값만 비싼 쪽방과 다를 바 없는 곳들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방들 사이에서 20대들은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게 된다.

'방살이'의 쳃바퀴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을 선언한 20대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정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 달 수입이 60만 원가량이라고 쳃을 때 이 돈으로 주거비 지출을 포함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이나 하숙집밖에 없다. 이 경우 아마도 그 혹은 그녀는 한 달 수입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내야 할 것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이다. 남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학비를 내고 말이다. 그런데 때마침 등록금이 1천만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안타까운 20대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이며,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고시원을 맴돌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회사에 취직한 20대 후반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의 연봉은 2천만 원 정도다. 이 사람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서울 시내에 있는 원룸(2009년 9월 현재 더 올랐지만)을 얻었다고 치자. 이 경우 일단 매달 4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가량이 월세로 나간다. 여기에 부모님한테 쫓 1천만 원을 돌려 드리면, 한 해 동안 남는 돈은 약 500만 원. 이 돈으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상 500만 원으로 일 년을 버티긴 힘들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마도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돈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벗어나 전세로 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말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운이 좋은 편이다. 부모에게서 1천만 원이라는 목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니까.

(중략)

방살이, 즉 방에서 혼자 사는 삶.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이 생활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종종 이런저런 핑계로 얼마든지 썩거루족이 될 수 있는데도 굳이 나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방살이는 나름대로 억눌린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실제로는 일부 기성세대의 자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한 땅값과 집값만큼이나, 우리의 방살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과는 다른 감수성으로 방에서 산다.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는 방들은 고립된 섬이다. 며칠간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는 직장 동료의 원룸을 찾아갔더니 혼자 목숨을 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고시원에서 홀로 살던 이가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질러 다른 이들의 목숨을 앗은 사건, 사고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집에 들어가도 들어간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억압적 환경에서 벗어난 자유,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 성인으로서 자신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자유... 동시에 섬에 고립된 수많은 원룸과 반지하방과 고시원과 하숙집의 세입자들. 방살이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극단적인 양면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을 것이다. 매달 월세를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럭저럭 생활을 이어 나가는 사람들 말이다.

— 우석훈,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문제1-1] (가)의 관점을 적용하여 (나)의 ‘나’와 (다)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가) 또는 (나)를 참고하여 (다)의 ‘방살이’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1973년 가을학기 대학원 선발과정에서 여학생을 차별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집단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 1>의 지원자 전체의 합격률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지원자 집합자료

남학생		여학생	
전체 지원자 수	합격률	전체 지원자 수	합격률
8442	44%	4321	35%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대학원이 여성 차별적인 선발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표 2>의 학과 별 합격률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지원자 학과 별 세부자료

	남학생		여학생	
	지원자 수	합격률	지원자 수	합격률
A	825	62%	108	82%
B	560	63%	25	68%
C	325	37%	593	34%
D	417	33%	375	35%
E	191	28%	393	24%
F	373	6%	341	7%
전체	8442	44%	4321	35%

(나)

신장결석 치료방법은 개복수술법(open surgery)과 피부를 통한 신석절제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이 있다. 신석절제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복수술법 또는 신석절제술을 받은 환자 전체의 치료성공률에 대한 <표 3>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표 3> 신장 결석 환자 집합자료

	개복수술법		신석절제술	
	환자 수	성공률	환자 수	성공률
전체	350	78%	350	83%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반대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자 증세에 따른 각 치료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표 4>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4> 환자의 증세에 따른 세부자료

	개복수술법		신석절제술	
	환자 수	성공률	환자 수	성공률
경증 환자 (작은 결석)	87	93%	270	87%
중증 환자 (큰 결석)	263	73%	80	69%
전체	350	78%	350	83%

[문제 2-1]

(가)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여성차별적인 선발을 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관찰결과**를 제시하시오. (나)에서 신석절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관찰결과**를 제시하시오. (가) 사례와 (나)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두 사례가 자료해석에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는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가)에서 전체 학생들의 집합자료가 보여주는 바가 각 학과의 세부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에서 전체 환자들의 집합자료가 보여주는 바가 환자의 증세에 따른 세부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